

---

# 주식투자모델 개발을 위한 로드맵

최세일\*

## A Road Map for Developing a Stock Trading Model

Se-Il Choi\*

### 요 약

명료하면서도 수익이 나는 주식투자기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투자수익 발생구조와 투자자의 상황, 그리고 주식시장의 장세가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통합적 이해 과정은 주식투자자들로 하여금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요구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주식투자자가 자기 상황에 적합한 주식투자모델을 완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주식투자 고려요소들을 분류하고, 그 요소들을 통합해 가는 과정을 로드맵화 하였다.

### ABSTRACT

In order to construct a profitable stock trading model, three considerations must be resolved in the model in integrated manner: profit principle, trader's conditions and stock market trends. Generally, a model will be developed through long experiences of stock trading that requires quite amount of expenses and time. This paper analyzes the issues involved in those considerations and proposes a road map for a trading model.

### 키워드

stock, investment, trading, trading model  
주식, 투자, 매매, 투자모델

## 1. 서론

많은 주식투자자들이 주식투자를 쉽게 생각하고 주식투자를 시작했다가 금전적, 시간적 손실로 큰 고통을 겪는다. 이러한 주식투자자들에게 수익 나는 주식투자모델은 꿈이고, 그러한 투자모델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수익을 올리는 수많은 주식투자자들을 생각해 볼 때, 수익형 투자모델을 만드는 일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본 논문은 어떻게 하면 수익 나는 주식투자모델을 만들 수 있는

지 모델설계에 필요한 기본요소들과 모델설계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다.

주식투자자들이 주식투자에 입문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첫째, 아무런 기초지식 없이 주식투자를 하지만 수익을 얻는 단계, 둘째, 지식 없는 투자로 인하여 많은 손실을 입는 단계, 셋째, 손실을 회복하기 위하여 많은 공부를 하지만 그래도 계속 손실을 입는 단계, 마지막으로 꾸준한 공부와 투자방법 개선을 통하여 꾸준한 수익을 얻는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 호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sichoi@honam.ac.kr)

접수일자 : 2012. 03. 05

심사(수정)일자 : 2012. 03. 23

게재확정일자 : 2012. 06. 07

주식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주식투자 서적[1-9]에 소개된 다양한 투자원칙을 공부하면서 자신에게 적합한 투자원칙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그렇지만 아무리 서적에 소개된 투자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원칙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투자원칙에 따라 주식투자를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투자자는 여기에서 무엇이 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점차 자신에게 적합한 수익형 주식투자모델을 만들어 가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대단히 길고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투자모델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고려요소와 원리, 그리고 그러한 원리를 습득하기 위해 거쳐야 할 로드맵을 제안한다.

2장에서는 시중에 소개된 다양한 주식투자기법에 대하여 검토해보고, 3장에서는 모델설계 고려요소에 대하여 알아본다. 4장에서는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할 주식투자 수익원리를 설명하고 그 원리를 습득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안한다. 5장에서는 한 가지 주식투자기법에 대하여 소개된 원리를 적용하여 타당성을 확인해보고 6장에서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 II. 관련 연구

국내외를 막론하고 시중에 이미 수많은 매매기법이 소개되어 있다[1-9]. 그러나 소개된 대부분의 매매기법은 어떻게 해서 수익이 나는지 수익원리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물론 이러한 기법을 통한 매매를 반복하면서 수익원리에 대하여 터득해 갈 수도 있겠지만, 이론적 설명이 충분치 않는 기법은 습득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지출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습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골든크로스/데드크로스[1], 볼린저밴드의 수렴/발산[2], 엔빌로프 돌파/붕괴[3], 쌍바닥/쌍봉 변곡, 지지/저항 돌파/붕괴[4], 이평선 돌파/붕괴[4], 추세선 지지/붕괴[5] 등 파동에 관련된 원리[6]를 이용한 매매기법은 단순하면서도 적용이 쉽기는 하지만, 특정한 상황, 특정한 종목에서만 해당 기법이 유효하다. 따라서 이러한 기법들은 어느 종목, 어느 파동상황에서 확률이 높은지

기법과 함께 적합한 상황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파동원리 기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파동원리[6]와 함께 거래량 분석[7], 수급원 분석[8], 공시분석[9], 뉴스분석[9] 등을 통합적으로 적용한 매매기법은 저점진입을 보장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매매기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법은 파동분석과 더불어 다양한 시장분석을 추가하여야 함으로 매매기법이 단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매수를 잘 했다 하더라도 매도 시점을 잘못 잡는 경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주식투자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가치투자 기법[10]은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저평가된 주식, 혹은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기법은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서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수익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성공 확률이 높지만,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과정이 복잡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으면 매매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공학적 원리 혹은 수학적 원리를 이용한 주식투자 기법[11]은 분명한 수익을 보장하지만 매매를 위한 높은 수준의 공학적 지식이나 수학적 지식,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이 요구됨으로 인해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매기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투자기법의 간편성으로 인해, 시중에 소개된 파동원리[6,12,13]를 기반으로 한 매매기법을 선호하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기법들은 매매 대상 종목과 투자자의 상황이 맞아야 한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주식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시간적 여유와 안정된 주식장세가 요구됨으로 대형주를 대상으로 한 스윙트레이딩 기법이 적합하고, 반대로 전업트레이더에게는 짧은 시간에 높은 소득이 가능해야 함으로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를 대상으로 한 데이트레이딩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파동으로부터 수익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를 투자자의 상황과 각 종목별 매매 파동특성에 알맞도록 매매기법을 모델화하여야 한다.

## III. 모델 설계 고려요소

이 장에서는 주식투자모델 설계에 필요한 투자요소에 대하여 분석한다.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주식투자자는 자기만의 수익형 주식투자모델을 찾을 때까지, 주식투자 실패를 반복하게 된다[14-17]. 이러한 실패요인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① 수익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
- ② 시간적 상황에 알맞지 않는 주식투자 방법
- ③ 자금 상황에 알맞지 않는 주식투자 방법

결국 수익이 나는 주식투자모델을 만들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다음 표1에 요약한 바와 같이 수익구조, 시간, 자금으로 압축할 수 있다.

표 1. 주식투자모델 설계 고려요소  
Table 1. Considerations for a stock trading model design

고려요소	목표
수익구조	수익원리
시간	승률향상
자금	수익률향상

### 3.1 수익구조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투자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 투자의 본질에 대한 이해 없는 투자는 투기라고 할 수 있는데, 주식투자에 대하여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수익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수익이 안정적이지 않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수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손실을 보게 된다. 주식투자에서 수익원리와 관련하여 알아야 할 기초지식은 다음과 같다.

- ① 투자
- ② 트레이딩
- ③ 투기
- ④ 세일즈
- ⑤ 비즈니스

#### 3.1.1 투자

투자란 원금 혹은 원래의 가치가 보존되는 매수 행위를 말한다[10].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처럼 확보된

자산이 없어지지 않는 투자는 원금이나 가치가 그대로 유지되는데, 주식투자에 있어서도 가치나 가격이 보존되는 방식의 주식투자를 투자라 한다. 주식에서 투자는 주식의 가치가 변하지 않았는데 매매되는 가격이 하락한 주식, 즉 가치가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하거나 앞으로 가치가 성장 할 주식을 매수, 보유함으로써 거래가격의 회복이나 상승을 통하여 수익을 기대하는 주식투자기법을 말한다. 이러한 주식투자기법은 가치와 가격의 평가 방법을 이해해야 함으로 주식에 대하여 많은 공부와 연구를 필요로 한다. 반면에 이러한 주식투자의 경우, 손실이 없거나 크지 않기 때문에 손실축소, 수익확대 등과 같은 고도의 매매 테크닉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투자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은 매수기회가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매수기회를 기다리는 인내와 매수기회가 오면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 3.1.2 트레이딩

주식도 일반 상품과 같이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임으로 매매차익을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11]. 트레이딩은 투자와 달리, 가치와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 없고, 거래 당시의 가격변동에 대한 파동 원리만이 중요할 뿐이다. 트레이딩과 투자의 큰 차이는 매도에 있다. 투자는 원금이나 원가치가 보존됨으로 인해 매도를 서두를 필요가 없지만 트레이딩은 매도기회를 놓치면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반드시 매도를 해주어야 한다.

매도를 잘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트레이딩은 세일즈와 본질이 유사하다. 그러나 세일즈는 과일가게에서 과일 판매와 같이 판매자가 가격을 정해놓고 매도를 하지만, 트레이딩은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매매가격을 보면서 적절한 매매가격에서 매도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 3.1.3 투기

투기는 원칙이 없는 투자와 트레이딩을 모두 일컫는다. 다시 말하여 가치가 저평가된 상태가 아닌데도 투자를 한다는 명목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 언제 매도해야 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 등 손실에 대한 대비 없이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를 투기라 한다[10].

### 3.1.4 세일즈

일반적 상업 활동에 있어서 세일즈와 비즈니스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주식매매도 일종의 상업 활동임으로 세일즈와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세일즈는 우리주변에서 항상 볼 수 있는 도소매점에서의 매매행위를 말한다. 세일즈는 단순히 사고파는 매매행위 만을 통하여 수익을 추구한다. 세일즈도 수익 창출의 의미에서 비즈니스와 유사하지만 복합적 수익활동을 동반하는 비즈니스와 수익 활동의 단순성 면에서 구분된다. 또한 세일즈와 트레이딩에 대한 차이를 다시 언급하면, 매도를 판매자가 원하는 가격에 하느냐 아니면 시장에 형성된 가격으로 하느냐에 달려 있다.

### 3.1.5 비즈니스

비즈니스란 복합적 수익활동을 요구하는 상업 활동을 말한다. 예를 들어, 대형 기업에서는 기본적인 판매수익 외에 수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기업 활동을 필요로 하는데 경비절감을 위한 인사관리, 판매확대를 위한 판촉활동, 현금가치의 유지를 위한 자금관리 등 다양한 보조 수익활동이 통합적으로 동반된다. 주식투자에 있어서도 수익 배가를 위해 비즈니스적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물+선물+옵션 복합투자, 현금차입을 통한 레버리지의 확대, 컴퓨터를 이용한 매매기법의 자동화 등이 이에 해당 된다 [15]. 일반적으로 주식투자자들은 수익 기법을 터득했다고 할지라도 그 수익의 크기가 너무 미미하여 그 기법 보다는 더 좋은 기법을 찾아 시간을 버리거나 아니면 투기적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 더 좋은 기법을 찾는 것 보다는 일단 한 가지 기법이라도 확실 해지면 비즈니스적 원리를 적용하여 수익을 확대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 3.2 시간

아무리 좋은 주식투자기법이 있다 할지라도, 종목이 요구하는 시간 조건과 자신에게 허용되는 시간 조건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투자기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16]. 예를 들어 어떤 코스닥종목은 움직이지 않을 때는 거의 움직임이 없다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대형주는 항상 지속적으로 움직이지만 그 움직임 폭이

그리 크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움직임의 차이는 모든 종목에 걸쳐서 조금씩 다르므로 투자자는 자신의 시간적 상황에 알맞은 종목을 골라 매매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려면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긴 시간에 걸쳐 움직이는 대형주 종목을 매매하기가 수월하지만, 전업투자자에게는 대형주의 움직임이 둔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시간 대비 수익이 크지 않아 적합한 매매종목이라고 할 수 없다.

매매기법이란 타이밍을 찾는 방법이라고 간단히 정리할 수 있는데[18], 매일매일 발생하는 타이밍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몇 일에 한 번씩 나타나는 타이밍을 찾을 것인지, 투자자 자신의 시간적 상황과 종목별 시간적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 3.3 자금

자금 상황을 고려하여 주식투자기법을 달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소액으로 주식투자를 할 때는 대형주, 고가주를 다루기가 부담스럽다. 따라서 소액 투자자는 코스닥주, 소형주를 주로 취급하게 되는데 소형주는 대형주와 움직임이 달라 대형주 투자기법과 다른 투자기법을 필요로 한다. 반대로 큰 자금으로 소형주 주식투자를 할 때는 주가의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형주 투자를 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형주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큰 자금으로 투자를 할 때는 소액 투자와는 다른 방법으로 투자를 하여야 한다.

## IV. 모델 개발 로드맵

주식투자는 투자자의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투자기법이 갖추어져야 한다. 아무리 시간과 자금이 많다 하더라도 주식투자에 대한 지식이 정확하지 못하면 수익을 보장할 수 없고, 아무리 좋은 주식투자기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간과 자금 사정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 또한 수익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투자자의 성격, 시간, 자금상황 등에 적합한 주식투자 종목을 찾고, 수익을 배가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다음, 주식을 매매하는 방법을 기법화하여 정착시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본

논문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기법을 완성해 갈 수 있을 지 그 과정을 다음 그림 1과 같이 로드맵화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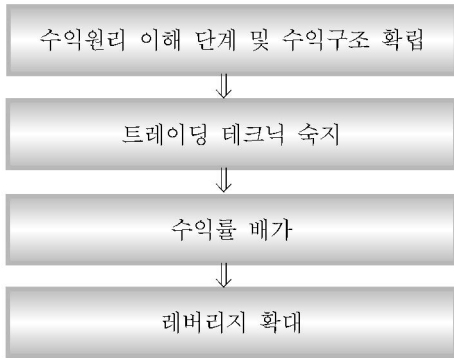


그림 1. 트레이딩 모델 개발 로드맵

Fig. 1 The road map for developing a stock trading model

#### 4.1 수익원리 이해 단계

주식투자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수익원리에 대하여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선물시장에서 모든 매매는 매수가격에 이윤을 더하여 매도가격을 결정하게 됨으로 매도는 언제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주식에서 매매가격은 가격의 변동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함으로 투자자가 매도가격을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주식매매 있어서 수익은 의도적 이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수익원리들의 합성에 의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수익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주식투자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주식투자를 시작하는 첫 단계에서는 다음 수익원리들을 이해하고 그 원리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는 시험적 투자를 해야 한다.

- ① 익절크기 > 손절크기
- ② 배팅기법
- ③ 승률관리
- ④ 시간관리

##### 4.1.1 익절 > 손절

매수를 하는 순간에 수익매도(익절) 혹은 손실매도(손절)의 크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주

식을 5000원에 매수하였다면 2000원 수익이 되는 7000원에 수익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1000원 손실이 되는 4000원에 손실매도를 계획하여야, 매매에 대한 기대결과는 수익이 됨으로 전체적인 주식투자의 결과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익절확률이 손절확률보다 커야 한다는 것이다. 즉 아무리 손실 폭이 크지 않다고 할지라도 작은 손절로 인한 누적 손실이 크게 되면 결국 손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식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익절확률이 손절확률보다 높은 지점에서 진입하는 것이다.

##### 4.1.2 배팅기법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식투자의 핵심은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곳에서 진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식 가격 움직임은 좀처럼 매수기회를 잘 주지 않는다. 따라서 완전한 기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바로 수익을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문제는 배팅을 기법화하여 해결한다. 예를 들어 지지/저항선에서 반등할 때 매수진입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지/저항선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반등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지/저항선을 붕괴시켰다가 반등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반등 형식이 일정치 않음으로 매수기회를 자주 놓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지지/저항선 근처에서 분할매수를 통하여 매수기회 손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분할매수에 관련된 배팅기법은 수없이 많다. 마팅게일[19], 파롤리, 피라미드, 3-3-3 등 다양한 배팅 방법이 시중에 알려져 있음으로 이러한 배팅 방법을 도입하여 주식매수 배팅에 응용할 수 있다.

##### 4.1.3 승률관리

주식가격의 움직임이 항상 일정한 패턴을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20]. 그렇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예측 가능한 움직임을 보일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지지/저항선에서 변곡이 나타날 확률이 높았던가, 이평선이 수렴한 다음에는 크게 발산하게 된다던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평선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한다던가, 하락하던 주식의 거래량이 늘어나면 저점을 형성하게 된다던가 하는 등의 특정상황별로 주가 움직임의 방향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과학적 이치에 따르는 것으로 이러한 원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는 금융공학 분야도 실제로 존재한다. 주식투자에서도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승률[21]을 높임으로서 주식투자의 수익 배가를 기대할 수 있다.

#### 4.1.4 시간관리

주식투자를 하든 투자를 하던 그 것을 통하여 부자가 되는 방법은, 수익이 났을 때 일어설 수만 있다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 말을 다시 해석하면 주식 투자든 투기이던 자기가 이겼을 때 일어설 수 있도록 게임규칙을 만들지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뜻으로 재해석 할 수도 있다. 실제 주식투자는 시간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취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누적식 주식투자기법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다 보면 손실이 날 때도 있지만 언젠가 수익을 보게 됨으로 그러한 상황이 올 때까지 자금과 시간을 투자하던가, 아니면 매도 조건, 즉 게임종료 조건을 시간 조건과 수익률 조건의 2가지 조건으로 주고 2가지 조건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수익이 난 상태에서 매도를 함으로서 승률을 높이는 방법을 취하는 매매기법도 있을 수 있다.

## 4.2 트레이딩 테크닉 숙지 단계

일단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이해했다면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매매수익을 내는 연습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수익원리를 주가파동에 적용하여 실제 수익을 내는 기법을 만들고 그 기법을 연습해야 한다. 아무리 머리속으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완벽한 매매전략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매매현장에서는 자기가 생각한대로 매매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머리와 행동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실제 매매를 해나가다 보면 너무나 다양한 예상치 못한 상황을 자주 마주치게 된다. 어떤 종목은 거래량이 거의 없어서 매매를 할 수 없고, 어떤 종목은 매수가와 매도가 차이 폭이 너무 커서 매매할 때마다 손실을 볼 수밖에 없고, 어떤 때는 시가부터 상한가로 시작하여 전혀 진입을 할 수 없고, 어떤 때는 몇 일동안 계속 같은 가격대에서 움직이지 않아 매매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등의 다양한 예상치 못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매매

를 숙달하는 과정동안 이러한 특정 상황들도 동시에 충분히 경험하고 이해해야 한다.

맨 첫 단계로는 중형주를 중심으로 증장기 트레이딩 연습을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소형주가 짧은 시간에 높은 변동성을 보임으로 인해 초보 매매자가 다루기에 너무 어렵고, 대형주는 변동성이 너무 낮아 매매 기회가 자주 오지 않음으로 인해 매매연습을 하기가 또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형주를 이용한 매매기법에 자신을 갖게 되면, 대형주 보다는 변동성이 높은 소형주를 다루는 것이 주식투자 공부 및 습득에 도움이 된다.

### 4.3 수익률 배가 단계

위에서 언급한 트레이딩은 파동에 근거한 주식매매기법이었다. 그렇지만 모든 종목의 움직임 파동이 모두 조금씩 다름으로 한가지 방법으로 모든 주식을 매매하여 수익을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파동을 기반으로 한 주식매매는 전형적 주가움직임 파동을 보이는 종목을 주로 다룬다. 전형적 움직임을 보이는 주가 종목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움직임 패턴을 보인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서 파동의 움직임에 올바르게 대응하기만 한다면 지지 않는 매매를 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여, 우리는 주가의 상승이나 하락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을 기반으로 수익이 나는 매매를 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예상되는 파동의 움직임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지지 않는 매매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예상되는 파동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방법만으로는 큰 수익을 기대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수익을 최대화하는 방법을 매매에 도입해야 한다.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주가 움직임 방향의 예측이다. 만일 주가 움직임의 방향을 예측할 수만 있다면 매수하여 길게 가져 갈 수 있기 때문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주가 방향의 예측은 다양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하락하던 종목의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난다던가, 하락하던 종목에서 신규공시가 나온다거나, 상승하던 종목에서 호재나 악재가 나온다거나 기타 파동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사고들이 발표 되던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수요가 급격히 늘어 날 수밖에 없던가, 유동성의 확대, 특별한 정책 및 정치적 변동 등과 같

은 상황이 발생 하던가, 개별 종목과 업종지수 차이를 좁히려는 방향으로 움직이든가 등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상황이 발생 할 때는 그러한 정보들을 파동의 움직임과 함께 분석하여 주가 움직임 방향을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 한다면 있다면 수익률 높은 수준급의 주식투자를 할 수 있다.

#### 4.4 레버리지를 확대한 트레이딩 단계

일반적으로 기법을 배우기 위해 시험적으로 주식투자를 할 때는 적은 자금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자금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주식투자를 시작하게 되면 자금관리 부재로 인하여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자금관리 개념이 없으면 완벽한 찬스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레버리지 확대를 하지 못하여 기대수익이 적을 수도 있고, 아무 때나 투자 자금을 너무 크게 유지하여 급변동시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적절한 자금을 투자하여 최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이 주식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올리는 방법을 아는 것만큼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실제적인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자금관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자금관리 기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자금관리는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분야에서 핵심적인 사항이다. 주식투자를 하기위하여 자금을 투입한다는 생각보다는, 운용할 자금이 있는데 그 자금을 주식투자에 투입, 운용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는 사고로 주식투자에 접근해야 한다. 다시 말하여 이 단계에서는 주식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얻기도 하지만, 자금관리를 통하여 수익을 얻기도 한다는 복합적, 기업적 사고를 해야 한다.

자금관리는 주식투자에 동원되는 모든 유형의 자금관리를 말한다. 매수 진입 시 설정하는 수익 목표금액 설정 및 달성관리, 최대허용 손실금액 설정 및 위험관리, 투자자금 대비 보유자금 비율관리, 전체자금의 위상향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수익률관리, 자기자금 대비 차입금 비율관리 등 자금을 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생각해야 할 포인트가 많다. 그러나 주식투자자에게 많은 것을 동시에 생각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으로 주식투자에 있어서 자금관리를 쉽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레버리지 관리라는 단일 용

어로 표현 할 수 있다.

주식투자에 있어서 관리해야 할 레버리지에는 투자자금 대비 보유자금의 비율 레버리지, 자기자금 대비 차입자금의 비율 레버리지의 2가지 형태의 레버리지가 있다. 가치가 저평가된 주식 종목이 있다고 하면, 매수 후 손실 가능성이 낮음으로 레버리지를 높여 많은 금액을 투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단순히 주가차익만을 노리는 주식투자는 레버리지를 높이면 주가의 급락 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한편으로 매매차익만을 노리는 주식투자는 수익의 크기가 크지 않아 투자자들의 주목을 별로 끌지 못한다. 따라서 확실한 수익 매매기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높은 레버리지를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대형주보다도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선물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것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법의 완성도가 높아질수록 레버리지를 높이는 방법도 같이 고려하여야 수익을 배가할 수 있다.

## V. 매매기법 사례 검토

이 장에서는 한 가지 매매기법을 선정하여 위에서 언급한 매매기법 설계 요소를 기반으로 그 기법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법인지,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검토한다. 그러한 기법을 습득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과정 혹은 로드맵에 대한 논의는 일단 기법이 완성되면 의미가 없으므로 검토에서 제외한다. 여기에서는 KOSPI200 ETF 종목을 2일 이내에 매매를 마치는 추세추종 초단기 매매기법을 다룬다.

### 5.1 추세추종 초단기 매매기법

주식 가격의 변화는 추세와 비추세를 반복하면서 움직인다. 일단 추세가 형성되면 한동안 추세를 계속 유지하는 경향이 있고, 추세가 꺾이면 반대로 한동안 계속 비추세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13]. 그 중에서 특히 추세를 확인한 후, 추세를 따라가면서 주식매매를 하는 기법을 추세추종 매매기법[5]이라 한다. 추세추종 매매기법의 장점은 추세추종에서는 언제 진입을 하더라도 수익매도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주가는 아무리 추세적 움직임을 보인다 하더라도 언제 추세가 꺾일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적절한

시점에 매도를 해주지 않으면 추세추종 매매기법이라 하더라도 손실을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추세추종 매매기법의 핵심은 추세를 따라가면서 적절한 매도시점을 찾아 매도하고, 다시 매수기회가 오면 매수를 하는 반복적 매매가 중요하다.

### 5.1.1 추세

전일 고점과 전일 저점을 기준으로 추세를 결정한다. 전일 지수가 상향추세 성향을 보였다면 당일 지수가 전일 저점을 붕괴시키지 않는 한 상향추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 반대로 전일 지수가 하향추세 성향을 보였다면 당일 지수가 전일 고점을 돌파하지 않는 한 하향추세가 지속중인 것으로 본다. 또한 전일 추세 여부와 상관없이 당일 지수가 전일 고점을 돌파하면 상방추세로 보고, 전일 저점을 붕괴시키면 하락추세로 본다.

### 5.1.2 진입

추세 방향으로 진행 도중, 일시적 조정 하락을 하다가 상승을 시작하는 시점에 진입한다. 예를 들어 상방추세 도중에 조정 하락을 하다가 전저점 혹은 앞저점에서 조정을 마치고 상방으로 되돌림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시점에 진입한다. 만일 전일 고점을 돌파한 갭이 발생하고 전일 고점 위에서 지수가 움직이고 있다면 전일 고점에서 상방으로 되돌림 변곡 발생시 진입한다.

### 5.1.3 청산

진입하여 추세 방향으로 진행하던 지수가 다음과 같은 상황을 보일 때 청산한다.

- ① 전일고점
- ② 증가 수익시 증가청산
- ③ 증가 손실시 홀딩
- ④ 홀딩종목 시가 수익시 시가청산
- ⑤ 홀딩종목 시가 손실시 지지/저항선에서 청산

## 5.2 평가

위에 소개된 기법이 수익을 낼 수 있을 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설계 고려요소를 기준으로 확인해 본다.

### 5.2.1 수익원리

추세추종 매매기법의 최대 장점은 기대 수익의 폭을 손실허용 폭보다 크게 잡는다 하더라도 기대 수익을 달성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주가의 움직임이 추세 방향을 유지하는 한, 조정의 폭은 작은 반면에 추세 방향의 움직임은 길고 크기 때문에 수익을 크게 잡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추세추종 매매에서는 수익 매도의 확률이 손실매도의 확률보다 높다. 그 이유는 가격의 움직임이 추세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매수시점의 가격보다 매도할 시점의 가격이 높을 확률이 높다. 또한 매도 시점에서 수익이 날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당일 수익 지지/저항 청산, 수익 증가청산, 익일 수익 시가청산, 익일 수익 지지/저항 청산 등으로 수익청산을 다양화함으로써 수익이 난 상태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

### 5.2.2 파동분석

KOSPI200 ETF 종목의 파동은 매우 안정되면서 전형적인 주가 움직임 파동을 보인다. 그 이유는 KOISPI200 지수가 국내 대표종목들의 합성에 의하여 만들어진 지수임으로 몇몇 투자자의 의도적 주가조작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흔들림이 적고, 반대로 아무리 주식시장이 일었다고 하더라도 대표 종목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KOSPI200 지수의 주가파동은 대단히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파동을 기반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전형적인 주가파동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KOSPI200 ETF 주가파동은 파동을 기반으로 추세를 판정하고 추세를 따라가면서 매매를 하기에 적합하다.

### 5.2.3 추세 방향성 예측

KOSPI200 지수의 파동에서 추세는 일단 추세가 형성되면 추세가 길게 간다고 추정할 수 있다. 개별 종목에서는 추세의 방향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해당 종목에 해당하는 각종 뉴스, 소문, 공시 등 단편성 정보를 취합하여 추세의 방향성 및 크기를 판정하게 되지만 KOSPI200 지수의 파동은 국가의 경제지수를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으로 파동의 길이와 크기가 개별 종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다. 다시 말하여 국가 경제가 단편성 정보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지 않는기 때문에 KOSPI200 ETF는 한번 추세가 형성되면 길게 갈 것으로 추정하고 매매를 할 수 있다.



#### 5.2.4 레버리지 확대

추세추종 매매기법을 적용한다고 하여도 KOSPI200 ETF를 대상으로 초단기 매매기법을 적용하여 고수익을 올리는 어렵다. 따라서 KOSPI200 ETF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보유금액 대비 투자금액의 크기를 대폭 높인다면 투자수익을 배가 할 수 있다.

#### 5.2.5 평가 결과

KOSPI200 ETF 종목을 대상으로 한 추세추종 매매는 레버리지를 높인다면 적절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주식투자기법임을 알게 되었다.

## VI. 결 론

본 논문에서 수익 나는 주식 매매기법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소개하고, 그러한 요소들을 통합하여 자기만의 매매기법을 만들어 가는 로드맵을 제안하였다. 물론 이러한 요소와 과정이 불충분 할 수도 있고, 혹은 이러한 요소와 과정이 아니더라도 자기만의 매매기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매매기법을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방법론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 논문은 주식투자에 입문하는 투자자들이 자기만의 기법을 만들기 위하여 겪어야 하는 반복적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자기만의 매매기법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매매를 하고 있는 투자자라 할지라도 그 기법의 이론적 기반이 확고하지 않으면 자기 매매기법을 변경, 개선하고자 할 때 큰 문제에 부딪힐 수 있는데, 그러한 투자자들에게 기법의 설계 및 변경에 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데에도 본 논문은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논문은 컴퓨터기반 트레이딩을 위한 트레이딩기법을 설계하는 데에도 응용될 수 있다. 수동트레이딩이나 자동트레이딩이나 트레이딩기법의 원리는 같음으로 트레이딩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개선하는 데에도 본 논문에서 제안한 로드맵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본 논문에서 다루는 방향성 매매가 아닌 차익거래,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트레이딩[11], 옵션합성, 경매[22], 인공지능[23], 카오스이론[24] 등을 기반

으로 한 고도화된 매매기법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매매기법들도 기저에는 방향성 매매에 대한 이론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주식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은 방향성 매매를 무시하고 곧바로 이러한 기법을 습득하려고 시도하기 보다는 기초지식을 닦는다는 생각으로 방향성 매매에 대한 확고한 지식 및 기법의 습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참고 문헌

- [1] 임상현, "차트투자의 기술", 새빛에듀넷, pp. 115-118, 2008.
- [2] 존 불린저, 신가를 역, "불린저밴드 투자기법", 이레미디어, pp. 89-92, 2010.
- [3] 성경호, "차트박사의 승률 80% 신 매매기법", 이레미디어, pp. 66-70, 2010.
- [4] 조용, "실전 차트 스윙 데이 스캘핑 기법", 이레미디어, pp. 225-226, 2010.
- [5] 정경재, "실전 추세선 매매기법", 이레미디어, pp. 112-119, 2010.
- [6] 고승덕, "고변호사의 주식강의 1", 개미들출판사, pp. 164-167, 2002.
- [7] 민구은, "거래량을 알면 차트의 급소가 한눈에 쏙 들어온다", 더북스, pp. 57-72, 2009.
- [8] 예민수, "외국인.기관 투자가 제대로 알면 주식투자 성공한다", 시대의창, pp. 192-223, 2001.
- [9] 우슬초, "이겨놓고 싸우는 주식투자", 새빛미디어, pp. 267-273, 2010.
- [10] 벤자민 그레이엄, 박진곤역, "현명한 투자자", 국일증권경제연구소, pp. 604-611, 2007.
- [11] 강수철, "한국형 시스템 트레이딩 실전전략", 국일증권경제연구소, pp. 131-149, 2002.
- [12] 마이클 코벨, 정명수역, "티틀 트레이딩", 위즈덤하우스, pp. 25-34, 2008.
- [13] 제시 리버모어, 박성환 역, "주식 매매하는 법", 이레미디어, pp. 80-81, 2006.
- [14] 정성진, "개인투자자의 투자행태 분석 : 해외 주식형 펀드 자료를 이용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8, 2009.
- [15] 김종철, "개인투자자들의 투자행태에 관한 연구 : 서울지역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세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 1988.
- [16] 김귀현, "KOSPI 200 선물시장에서의 개인투자자 투자 행태에 대한 실증 분석",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 2005.

- [17] 이가연, 이윤구, “투자자 유형별 투자행태와 투자성과의 차이”, 산업경제연구 17권, 4호, pp. 1233-1253, 2004.
- [18] 손만승, “굿타이밍 주식투자”, 더난출판사, pp. 105-109, 2009.
- [19] 김정수, “누구나 돈 100억 마팅게일 주식투자로 만들기”, 정수, pp. 110-125, 2011.
- [20] 버튼 G. 맬키엘, “랜덤워크 이론”, 국일증권경제연구소, pp. 178-183, 2000.
- [21] 이태혁, “주식투자는 두뇌게임이다”, 카르페디엠, pp. 152-163, 2010.
- [22] 황희상, 박창수,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절차법을 중심으로 -”,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6권, 5호, pp. 757-763, 2011.
- [23] 양수영, 유남현, 손철수, 이태웅, 권준아, 김원중, “단체 관광객을 위한 지능형 가이드 시스템”,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6권, 2호, pp. 305-311, 2011.
- [24] 배영철, 박종규, “카오스 이론에 기반한 포메이션 제어를 위한 다중 카오스 로봇의 장애물 회피 및 동기화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5권, 5호, pp. 534-540, 2010.

### 저자 소개



#### 최세일(Se-Il Choi)

1984년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공학사)

1989년 플로리다공과대학교 전산학과 졸업(공학석사)

2002년 모니쉬대학교 전산학과 졸업(공학박사)

1984년~1993 LG전자, 삼성전자 연구원

1993년~현재 호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소프트웨어공학, 전자상거래, 금융공학